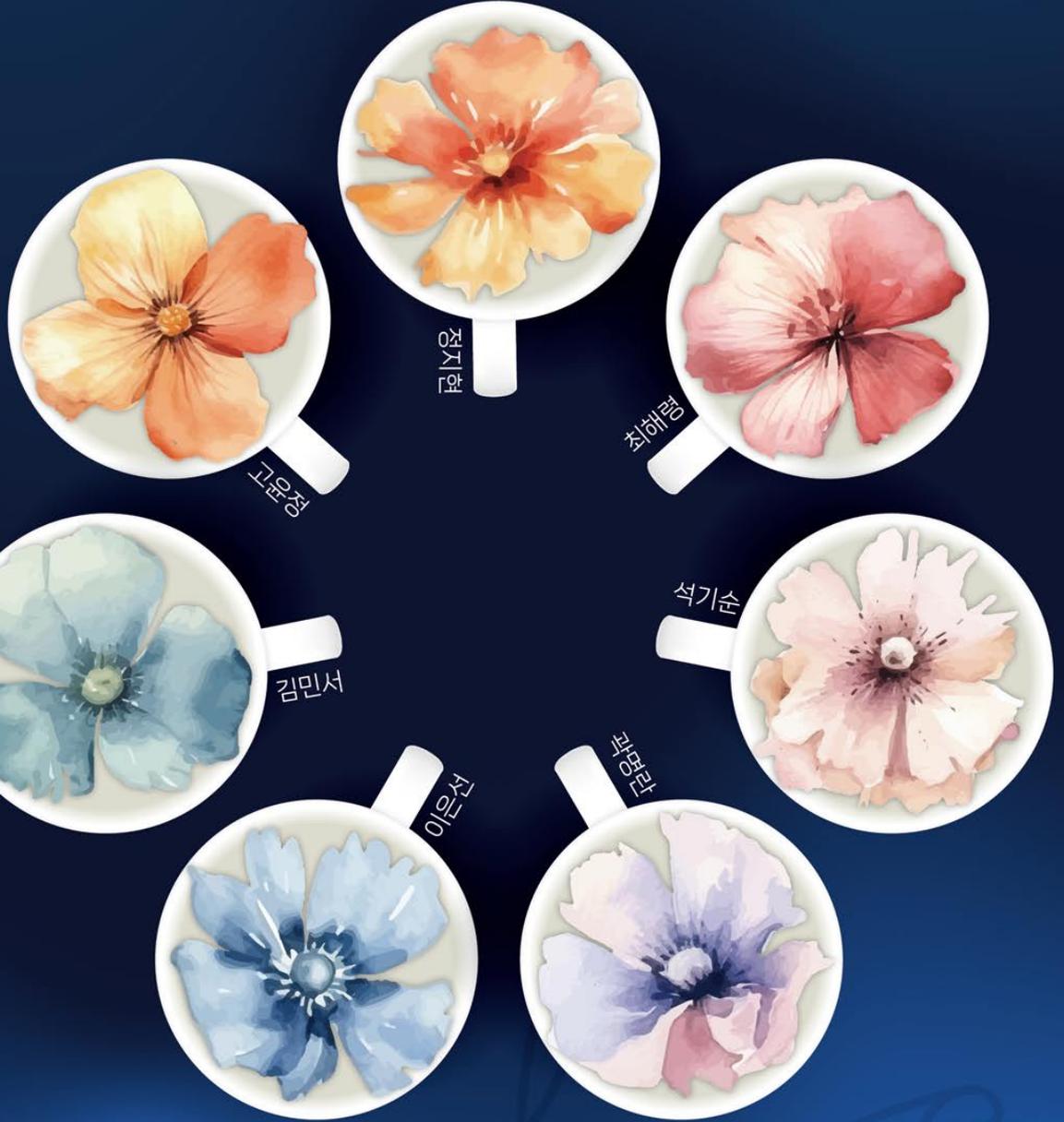


# 첫만남의

# Creative Art Floral Exhibition

2025. 12.2 (화)-4 (목)  
오전11시

단국대학교 미술관1층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 제23회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화예디자인 작품전



참여작가  
석기순 최해령 정지현 고윤정  
김민서 이은선 곽명란

지도교수  
문영란 강희찬

# ▶ 화예디자인전공 ◀

화예디자인 전공은 화훼를 매개로 한 예술의 한 분야로서 철학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학문 방법을 통한 이론 성찰의 기회, 그리고 다른 예술 장르와의 협업을 통한 실천적 응용 기회를 제공하는 학문이다. 또한 화훼(꽃 예술)와 연관된 인접 학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예술 창작 담론에 담긴 사유체계의 학습과 디자인을 둘러싼 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동·서양의 사상적인 문제의식을 탐구하여 이를 토대로 완성도 높은 화훼 작품을 제작 및 비평할 수 있는 시각과 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1 \_\_\_\_\_ 知音[지음]
- 2 \_\_\_\_\_ 양강음유(陽剛陰柔)의 묘함 & 유관순의 얼
- 3 \_\_\_\_\_ 초겨울 하늘
- 4 \_\_\_\_\_ 생의 추이(推移)
- 5 \_\_\_\_\_ A few minutes
- 6 \_\_\_\_\_ 無用之用[무용지용]
- 7 \_\_\_\_\_ 기억의 파편
- 8 \_\_\_\_\_ 氣韻生動[기운생동]
- 9 \_\_\_\_\_ Have a talk (부제: Tolerance Mind)
- 10 \_\_\_\_\_ 허와 실
- 11 \_\_\_\_\_ 어색한 첫 만남 그리고....
- 12 \_\_\_\_\_ 無爲自然[무위자연]
- 13 \_\_\_\_\_ Jazz Sculpture No.3 - Blossom
- 14 \_\_\_\_\_ 儉而不陋 華而不侈[검이불루 화이불치]



知音  
(이중)  
2022.12.12



知音《지음》

석기순

---

이 세상에 나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는 누구일까?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알아주고 격려와 지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친구는 누구일까?

그럼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나  
나에게 묻고 싶다

이런 친구가 있고 이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벗이 될 수 있고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정의하고 싶다.





## 양강음유(陽剛陰柔)의 묘합 & 유관순의 얼

석기순

---

【양강(楊剛) : 강하고 확고한 의지】

【음유(陰柔) : 부드러움 마음과 희생과 포용의 마음】

강함과 부드러움의 묘합을 통해 유관순의 얼은 단순한 역사적 재현이 아니라 동양 철학적 조화의 원리 속에서 다시 바라본 유관순의 얼이며 그녀가 지닌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할 때 얼은 비로써 꽃처럼 피어난다.





초겨울 하늘

최해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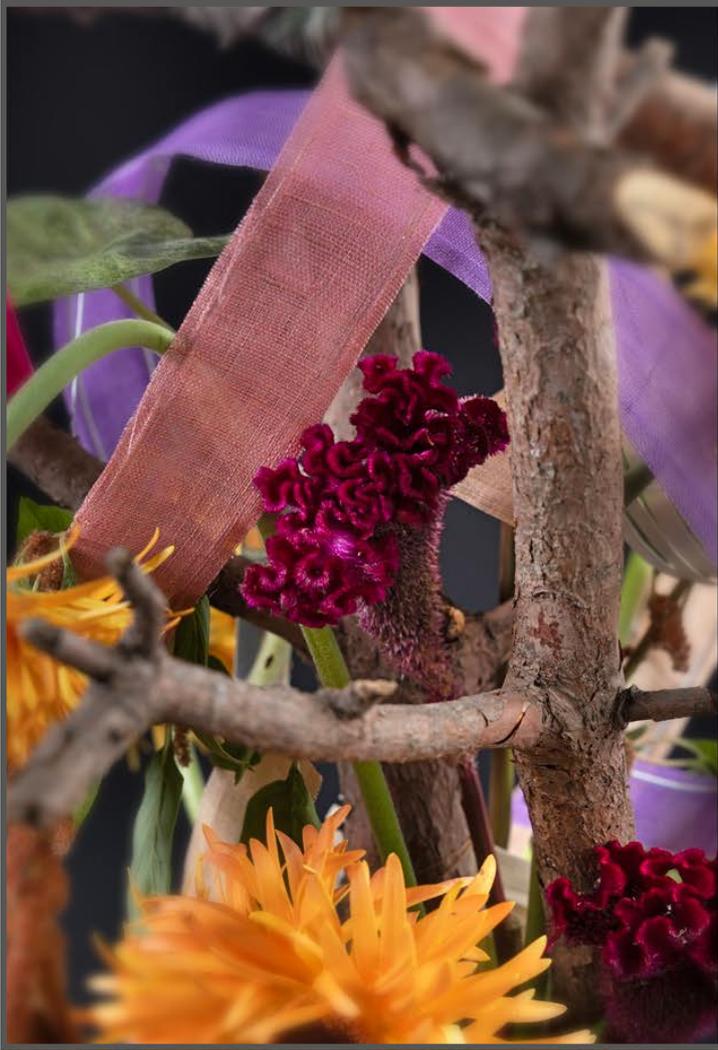
봄부터 이른 초겨울까지  
교미를 끝낸 푸나무들과 벌레들은  
너무 조용하다.

모두 빈 하늘을 우러러보는지  
하늘은 더욱 푸르고 깊다.

이 세상 비바람에 나부끼던  
풀잎 하나 떠나가는 소리도  
흰히 들여다보인다.

-양채영-





## 생의 추이(推移)

최해령

---

언젠가 멈춰버린 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고목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색의 변주에 스며들어 다시 살아난다.

고목은 멈춰버린 시간성을, 색의 리듬은 지속적인 삶의 연속성을 표현하였다.

소멸과 지속의 상반된 시간의 층위를 한 공간 안에 공존하게 함으로써 생의 추이가 드러내는 존재의 변화에 감응하게 한다.





A few minutes

정지현

---

커피 한 잔의, 잠깐의 휴식





## 무용지용(無用之用)

정지현

---

“계피는 먹을 수 있어서 그 나무가 베이고, 옷은 칠로 쓰이기 때문에 칼로 쪼개진다.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는 것의 쓸모만 알 뿐 쓸모없는 것의 쓸모는 알지 못한다.” 인간세편(人間世篇)





## 기억의 파편

고윤정

---

깨진 관계를 굳이 다시 붙일 필요는 없다.  
그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진 내가 될 수 있다.





## 기운생동(氣韻生動)

고윤정

---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사회적 가면 속 다양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경지까지 오르는 것이  
최고의 경지가 아닐까?





Have a talk

[부제:Tolerance Mind]

김민서

---

들리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서로의 온기가 오고 간다면  
우리의 대화는 그 자체로 충분하다.





## 허와 실

김민서

---

허해 보인다 하여 허하지 않고, 실해 보인다 하여 실하지 않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대상의 ‘의’를 중시해야 하며  
그 ‘의’를 있는 그대로 믿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어색한 첫 만남 그리고...

이은선

---

첫 만남의 어색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커피가 나오기 전, 초면인 이성과의 첫 만남.

어색해서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제작한 작품입니다. 창문으로 시선이 가던 그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은 어느새 연인이 됩니다.

의자의 꽃장식은 웨딩을 암시하는 것으로 관객이 의자에 앉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참여형 작품입니다.





## 무위자연『無爲自然』

이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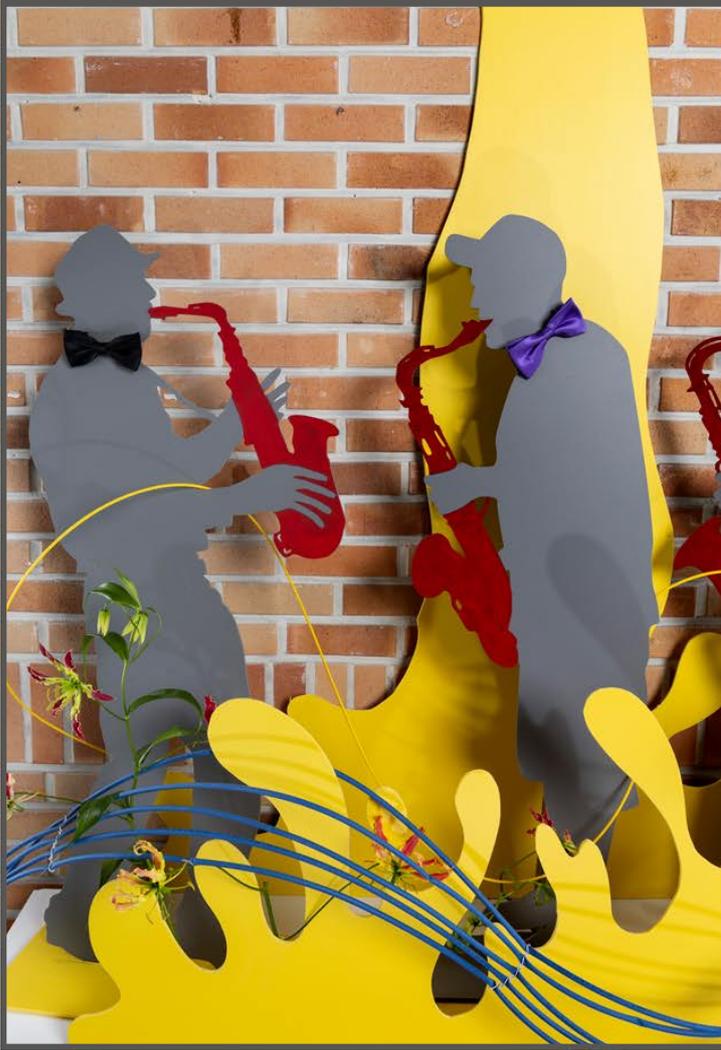
---

무위자연은 인위를 버리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을 뜻합니다.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하도록 두어 자연성 자체를 따르는 것입니다. 본 작품의 주 소재는 대나무이며, 발포 시멘트에 대나무를 고정하여 자연성을 살리되, 실(String)을 활용하여 대나무의 정지된 직선을 곡선으로 바꿔서 작품에 리듬감과 운동감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제작했습니다.



JAZZ  
SCULPTURE  
NO.3-BLOSS





## Jazz Sculpture No.3 - Blossom

곽명란

---

색과 소리, 자연이 경계를 넘어 서로에게 스며들며  
존재의 유동성을 드러낸다.

흘러내린 물감과 퍼져나가는 선율,  
꽃의 결합은 예술이 고정되지 않고 순간마다  
새롭게 생성되는 생명의 흐름임을 사유하게 한다.





## 儉而不陋 華而不侈

《검이불루 화이불치》

곽명란

---

조선의 미감이 응축된 이조 자개장 위에 모시의 흰빛과 노란빛으로 구현된 달항아리, 그리고 소나무의 생명선을 함께 배치해 완성된다. 화려한 자개의 빛은 찬란하지만 지나치지 않고, 모시의 결은 정갈하지만 비어 있지 않다.

서로 성격이 다른 재료들이 한 자리에 놓이면서도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검이불루 화이불치’, 즉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중용의 조화를 드러낸다.